양주시 장흥의 충장공 權慄도원수 묘역

시당국에서 20억 들여 성역화 완료
서울 행촌동의 집터 등은 그대로 방치

▲ 새로 단장한 충장공 묘소

▲ 신도비각쪽에서 본 충장공묘소 전역의 조망

▲ 성역화 사업 이전의 충장공 묘소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는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 후 22세世로 추밀공파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휘 근近의 6대손이다. 우리 역대 권씨 전체를 통해서 문文에서 제일가는 인물이 양촌이라면 무武에서 제일가는 인물은 충장공이다. 그런데 충장공도 실은 본디 문과文科로 출신한 문신文臣인데 만년에 무로서 현달하여 명장名將으로 분류되니 무신武臣으로 알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명사전 등의 분류를 보면 충장공은 문신、명장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출장입상出將入相이니 문무를 겸전한 인물에 해당한다.

▲ 사업 시행 전의 충장공 묘역 조망

어쨌든 무로서 우리 권씨 전체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충장공의 유적으로서 대표적인 성역이라 할 곳은 경기 고양시의 덕양산德陽山 행주산성幸州山城이다. 충장공의 전적지로서 행주산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금산군 진산의 이치대첩지梨峙大捷地인데 이곳은 행주산성의 성역화에 비하면 훨씬 못미치고 다음 수원 오산의 독산성禿山城인데 이 역시 잘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충장공이 태어난 곳은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자리의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집터 이웃에 있던 부친 강정공康定公 취금헌翠琴軒 휘 철轍의 집터로 추정한다. 백사 이항복이 충장공의 사위이고, 어린 백사가 옆집 강정공 저택 담너머로 늘어진 감나무가지의 감을 따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집으로 넘어온 감을 따가느냐고 짐짓 꾸짖으니 당돌한 백사가 방문종이를 뚫어 자기 팔을 밀어넣고는 이게 누구의 팔이냐고 따져묻는 기지에 탄복하여 강정공이 그 아이를 자기의 손서로 삼은 일화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충장공의 서울 생가生家로 문적 등에 지목되는 곳은 사직동 성곽 바깥의 행촌동杏村洞 거목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 노거수는 지금도 웅장하게 살아 있는데 오래전에 서울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행촌동이라는 동명이 바로 이 은행나무로 말미암아 생겼다. 이곳이 충장공의 생가라 하나 출생지인지 복거가卜居家로서의 거주지인지는 알 수 없다. 생가生家라 하면 태어나 생장生長한 집을 말하는데 태어나지는 않았더라도 살아서 거주한 생거生居의 뜻으로 생가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어쨌든 충장공의 경저京邸, 즉 서울집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겠고, 그 별업別業으로서의 향저鄕邸는 강화의 선원면 연리 연동蓮洞에 있었다. 충장공이 경상도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병환이 심상치 않아 해임하고 돌아와 강화 향저에서 요양하다가 위중하여 임금을 뵈러 뱃길로 상경해서는 끝내 입궐을 못하고 행촌동 경저에서 졸했으니 양쪽이 다 종생지終生地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충장공의 유택幽宅인 묘소는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의 홍복산洪福山에 건좌원乾坐原으로 삼열분三列墳이다. 초배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녕조씨昌寧曺氏와 재배 정경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가 나란히 3쌍분을 이룬 것이다. 그 계상階上에는 공의 바로 윗형 쌍천당雙泉堂 휘 순恂이 정부인貞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폄되어 있고 그 위에 최존위로 부친 강정공 묘소가 모친 정경부인貞敬夫人 창녕조씨昌寧曺氏와 함께 같은 좌향의 쌍분을 이루고 있다.

충장공의 유택이 자리한 장흥면 석현리 계곡과 동학洞壑이 수십년 전부터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각종 위락시설과 벼라별 호화 음식점이 들어서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 복판에 충장공의 유택은 갇혀 있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개탄하기를 '충장공이 국난에 나라를 찾아놓으니 못된 후세 것들이 여기와 온갖짓을 다한다' 하며 혀를 찼다.

2003년초에 당시의 양주군 당국에서는 2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문학자와 문화재위원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 이곳 충장공묘역의 성역화사업을 설계하였다. 충장공 묘역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휴식공간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양주의 명소를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 내용은 묘역 일대 7천여평 공간에 연못、전통담장、정자、재실、외삼문、비각 등을 새로 짓고, 시설지역 일대를 진입공간、참배공간、체험공간、묘역공간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주차장、진입공간、보행공간、잔디광장、전통정원、식물원、묘역、사초지莎草地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방문자에게 인지성과 사적지 분위기를 유도하여 입구감入口感을 조성하고 사적공원의 이미지를 나타낼 외삼문外三門、영롱석담장、안내판 등을 설치하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해 관리기능을 높이고, 참배공간에는 홍살문을 통과하여 이어지는 삼도三道 설치로 참배동선動線을 유도하고, 묘역공간은 수림대樹林帶에 송림松林을 조성하고 잡목제거、하예下乂、간벌、사초지 정비를 하여, 전통정원 조성을 위해 기존지형을 이용한 화계花階 및 일월담 설치로 묘역에 어울리는 공간을 창출하고, 만월문滿月門을 통해 보이는 총림叢林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묘역하의 마당을 설치한다. 또한 경내에 식물원을 조성하여 자생 수목 및 초화류草花類를 도입하고 다양한 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느낄 암석원岩石園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설계가 다 실현이 되면 이 묘역은 소규모 사적공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터였다. 충장공 묘역은 사실 경기도 기념물 제2호로서 매우 중요한 지정문화재이기도 하다.

대개 위와 같았던 충장공 묘역의 성역화 설계는 양주군 당국의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되었다. 초안에서 신도비를 이전하려던 계획은 묘소와 신도비 등은 원형보존이 중요하여 이전이나 변형이 불가한 것으로 되고, 신도비 내용의 국역와비臥碑 건립도 재고를 요해 보류되었다. 묘소의 기존 곡장曲墻은 해체하고 곁에 오르막길 묘도墓道를 자연스런 산책길을 겸하도록 내기로 하고 연못 설치는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자연스런 형태의 연못을 만들어 산록의 용맥龍脈과 어우러지게 하기로 했다. 삼도三道는 능원陵園의 제도이기 때문에 취소하여 사대부士大夫 묘소에 맞게 하나의 길만을 내기로 하여 홍살문도 그에 따라 세우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이 달라졌던 것이다.

본보는 이같은 충장공묘역의

▲ 충장공 묘소 계하의 내명당과 화계석으로 만든 묘도